

제6주제

지역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방안

조 창 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역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전략

(The Export Strategies of Agricultural Products of
Regions to The China)

조 창 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I. 들어가며

지난 2001년 11월 중동의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으로 불리우는 뉴라운드(New Round), 즉 「도하 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예정대로라면 이 협상은 2005년에 새로운 WTO 규범으로 출범할 것이고,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UR을 능가하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WTO 뉴라운드 출범은 우리 입장에서 2가지 측면으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그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하면서도 비공식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중국이 대만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¹⁾ 당당히 공식적으로 세계경제의 전면에 부상하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도 위상에 걸맞게 시장개방 폭을 대폭 확대²⁾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중국시장 진출이 한층 더 용

1) 중국은 1950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탈퇴하여 51년만에 세계무역기구(WTO) 143번째 회원국으로 2001년 11월 재 가입하였음.

2) 중국의 농업분야 세계무역기구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모든 수입제한은 관세화로 대체하고 2004년까지 농산물의 평균관세를 17%로 인하하며, 관세할당제도는 2004년까지 할당량을

이해졌다는 것이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농업부문에 한정하여 고려해 볼 때, 우리 농업, 농촌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경제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중국 농업의 현대화 추세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지리적, 기상·지질학적 이점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바야흐로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농업부문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급속히 확대·발전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값싼 자포니카 계통의 쌀은 2004년 한국의 쌀 시장 추가개방협상과 2005년 WTO 뉴라운드에 임하여 미국산보다도 더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노동집약적인 마늘, 양파, 고추 등 채소류와 각종화훼류 그리고 참깨 등 특용작물, 사과, 배 등 과실류도 중국산에 크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³⁾

그러나 이러한 위협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그동안 중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취해졌던 다양한 비관세장벽과 관세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해야 하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을 위한 기회요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즉 중국은 농산물 수입판매의 국가독점폐지, 외국상사의 국내유통참여, 농산물 관세율 하락 등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민간부문의 수요와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농산물 수입이 증가될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 인구의 22%, 세계 3위의 국토면적을 보유하여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요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광활한 토지, 천혜의 자연조건, 저임금 등으로 농산물 생산과 수출에 많은 강점을 가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출보조금의 사용금지, 증산효과가 있는 국내보조금은 농업총생산액의 8.5%까지 감축을 면제하는데 합의하였음.

3) 김성훈, "WTO 뉴라운드 출범과 한국농업의 생존전략", 『WTO 뉴라운드와 한국·전남 농업에 관한 심포지엄』, 민족농업연구소, 2002, p.9

고 있지만, 까다로운 소비자의 구미를 맞추기에는 품질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매년 9%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이나 삶의 방식, 소비생활 등이 개혁개방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다. 농산물 소비패턴은 곡물중심에서 신선과채류, 육류 등 소득탄력적농산물로 전환되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여파로 소득구조가 불균등해짐에 따라 고소득층에서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 시하는 소비패턴으로 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변화는 과거 정부관리하의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현재는 소비자 주도형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중국도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일부 고품질의 소득탄력적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서해연안지역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증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시장진출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면서 서해연안지역 농산물의 효율적인 중국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중국 농산물시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나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미미한 상태이다. 환언하면 수출을 하자는 정책대안과 수출을 해야한다는 당위성 주장에 앞서 무엇보다 검토되어야 할 것은 지역농산물의 수출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중국 농산물시장의 현황 및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대안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수출여건은 개선 되었다하나 법에 규정되지 않는 규제가 많아 투명하지 않는 정책이 빈번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의 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이 존재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지역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한·중 농산물 교역현황을 살펴보고 세계무역기구 가입이후 중국 농산물의 여건과 변화를 조망해 봄으로써 지역농산물의 효율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와 목적을 두고자한다.

II. 한·중농산물 교역현황

1.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

중국의 농수산물 수출은 '90년대 중반까지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나 '98년에는 연초, 식물성유지, 육류의 수출부진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수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5년 7.9%에서 2000년에는 5.8%로 감소하고 있다.⁴⁾ 이는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농수산물 수출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중국의 산업화의 진전,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농업부문의 개방화 등으로 가속화 될 전망이다.

중국 농수산물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품목은 축산물과 수산물이다. 축산물과 수산물이 농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경우 23.1%와 22.9%로 축산물과 수산물이 중국의 가장 주요한 수출품이 되고 있으나 축산물의 경우 그 비중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4) 중국의 전체 수출액중 농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년의 경우 총수출 1,487억달러 중 117억달러로 7.9%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0년의 경우는 총수출 1,949달러중 113억달러로 5.8%를 점유하고 있음.

<표 1> 중국의 농산물 수출구조

(단위: 억달러, %)

구 분	1995		1998		2000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식량류	2.4	1.6	16.4	11.4	17.6	10.7
식물성식용유	4.1	2.7	2.3	1.6	0.7	0.4
원 면	0.5	0.3	0.6	0.4	3.1	1.8
설 탕	1.9	1.3	1.2	0.9	0.8	0.5
채소류	24.5	16.4	20.9	14.5	22.6	13.7
과일류	6.9	4.6	7.5	5.2	10.4	6.3
축산물	37.1	24.9	32.4	22.5	38.2	23.1
수산물	32.4	21.7	28.0	19.5	37.8	22.9
기 타	39.4	26.4	33.8	23.5	34.0	20.6
합 계	149.0	100.0	143.7	100.0	113.6	100.0

자료 : 중국세관, 2001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채소류로 13.7%를 점유하고 있다. 채소류 수출은 중국의 농가소득 정책과 기술보급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곡물류는 국내 수급의 영향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쌀 수출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옥수수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현재 옥수수 재배 농민들이 수익성 높은 쌀 재배로 작목을 전환하는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쌀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수산물 수입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축산물, 수산물, 채소 및 과일류 등 외국的高质量 농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수입농수산물 중 상위를 점하고 있는 품목은 축산물, 식량류, 수산물 등이다.

축산물은 모든 수입농수산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95년 26.1%에서 2000년 38.6%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식량류는 '95년 25.7%에서 '98년 14.6%로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는 20.6%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두 및 대두박 등 유지작물의 수입증가 때문이다. 수산물도 '95년 6.7%에서 2000년 13.2%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식물성 식용유, 원면, 설탕 등은 국내 식부면적의 증가와 생산량 증가로 '95년 대비 2000년 수입실적은 극감하고 있다.

<표 2>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구조

(단위: 억달러, %)

구 분	1995		1998		2000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식량류	36.8	25.7	15.2	14.6	28.6	20.6
식물성식용유	23.2	16.2	13.0	12.5	6.0	4.3
원 면	13.8	9.6	3.3	3.2	0.7	0.5
설탕	9.0	6.3	1.5	1.4	1.2	0.8
채소류	0.1	0.1	0.5	0.5	1.0	0.7
과일류	0.9	0.6	2.3	2.2	3.9	2.8
축산물	37.4	26.1	34.1	32.8	53.6	38.6
수산물	9.6	6.7	10.2	9.8	18.3	13.2
기 타	12.8	8.9	24.0	23.1	25.6	18.4
합 계	143.6	100.0	104.0	100.0	138.9	100.0

자료 : 중국세관, 2001

한편 채소류와 과일류는 중국의 농산물 수입구조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극히 미약하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95년 대비 2000년도 채소류는 0.1%에서 0.7%로, 과일류는 0.6%에서 2.8%로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금액면에서도 채소류는 0.1억달러에서 1.0달러로

10배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일류는 0.9억달러에서 3.9억달러로 약3.3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채소류 및 과일류 등 고품질의 소득탄력적 농수산물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대중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

한·중 수교 이후 교류가 확대되면서 양국간의 교역은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다. 한때 한국의 외환위기로 무역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으나 최근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대중국 수출은 '93년 51억5천만달러에서 2000년 139억달러로 약2.7배 증가하였고 동기간 대중국 수입은 39억달러에서 89억달러로 약2.3배 증가하였다. 대중국 수입은 외환위기 이전 100억달러를 넘었으나, '98년 65억달러로 급감한 이후 회복세에 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93년 12억달러에서 2000년에는 48억달러로 약 4.0배가 증가하였다.

한·중 농산물 교역도 외환위기 전까지는 확대되어 왔다. 한·중 수교 직후인 '90년대 초반 한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입은 10억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97년에는 13억달러로 증가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직후인 '98~'99년 기간중 대중국 농산물 수입은 크게 감소하여 8억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2000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체 무역수지와는 달리 대중국 농수산물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이다.⁵⁾

먼저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액은 '93년 6,673천달러에서 2000년 58,964천달러로 8.8배 신장되었다. 품목별 수출액 비중은 당류 20.8%, 주류 14.3%, 과자류 10.9%, 면류 6.0% 등 주로 가공식품 위주이다. 채소류 곡류, 인삼류, 과일류 등은 각각 6.5%, 4.8%, 4.3%, 2.1%등으로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대중국 농산물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천불)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곡 류	9	57	351	1,073	1,126	1,018	1,823	2,828
두 류	30	2	172	122	160	62	65	148
과실류	47	3	292	570	2,141	1,191	1,123	1,262
채소류	94	202	1,132	1,544	2,052	1,168	1,845	3,831
화훼류	215	9	1	176	9	234	2,291	2,434
버섯류	38	4	18	48	34	25	6	58
인삼류	-	279	1,986	1,569	262	282	1,308	2,555
사 료	8	85	115	421	419	1,207	802	749
당 류	2,568	7,740	14,959	7,628	16,942	10,348	9,430	12,240
유지가공품	75	101	61	211	752	813	1,197	2,115
커피류	1,258	75	165	378	592	777	838	1,434
연초류	6	-	15,845	1,651	599	216	329	422
주 류	124	143	645	1,051	3,755	9,637	5,565	8,435
과자류	731	2,430	5,233	6,380	9,849	1,587	2,357	6,440
면 류	148	201	557	744	1,593	2,281	1,621	3,559
기 타	1,322	860	3,361	3,398	6,307	8,175	7,254	10,454
계	6,673	12,191	44,964	26,964	46,592	39,021	37,854	58,964

자료 : www.kati.net

그러나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고급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되면서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품질 농산

- 5) 대중국 농산물 적자폭은 외환위기 직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93년 이후 연평균 10억달러 수준에서 2000년에는 13억4천만달러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옥수수 수입증가에 기인함.

물 생산이 가능한 한국산 농산물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소류, 과일류, 버섯류, 화훼류 등의 수출액 비중이 '93년 5.9%에서 2000년 17.2%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삼수입에 대한 한·중간의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삼류의 수출이 증가될 전망이다.

'90년대 초 한·중 수교와 더불어 주요 대중국 농산물 수출품목은 자당, 껌 등 일부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품목이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자당이 대중국 수출액 중에서 2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알콜합성조제품(8.9%), 채소종자(5%), 밀(4.7%), 라면(3.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은 곡류, 두류 등 미가공 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0년 품목별 수입액 비중은 곡류 61%, 채소류 6.7%, 두류 2.2%, 과일류 1.7% 등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곡류 수입 비중이 현저히 높다. 곡류, 과일류는 수입비중이 높은데 반해 연도별 수입액 변화가 심하며, 사료곡물의 수입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 '93년 대비 2000년 수입액은 4.2배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가격경쟁력에서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도 대중국 작목별 수입액 비중은 옥수수가 5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쌀(3.2%), 팥(1.1%), 고추(0.9%), 대두(0.8%), 마늘(0.8%), 양송이(0.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추, 마늘, 파, 당근 등 채소류의 경우 대중국 수입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수입액도 3,000~10,000천달러 수준에 불과하나

우리나라 채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중국산 채소류의 상당부분은 산둥성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산둥성은 중국 최대의 시설재배단지로 향후 시설채소단지를 더욱 확대할 계획에 있어 중국산 채소류의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대중국 농산물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천불)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곡 류	630,008	504,743	14,246	50,851	497,201	359,804	191,559	703,203
두 류	11,008	28,465	11,257	16,324	11,009	10,602	19,129	25,195
과실류	5,961	8,348	22,184	34,324	34,190	9,357	11,251	19,694
채소류	18,493	63,182	49,623	64,735	65,853	60,609	72,086	77,403
화훼류	378	639	2,097	2,509	2,007	318	967	994
버섯류	7,799	7,815	10,066	9,282	10,005	4,940	8,344	8,707
인삼류	51	24	636	116	1,731	608	723	1,649
사 료	2,928	2,983	3,474	5,511	9,616	6,214	9,233	10,209
당 류	207	661	3,240	436	53	35	298	522
기 타	229,407	315,820	295,721	347,470	301,825	169,111	238,028	304,463
합 계	906,240	932,680	412,544	531,558	933,490	621,625	551,618	1,152,039

자료 : www.kati.net

Ⅲ. 중국 농업생산 및 농업구조 변화 전망

1. 중국 농산물 생산지대

중국농업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이나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다. 지구 육지표면의 6.4%를 점유하고 있는 광대한 면적에 걸

맞게 중국의 영농형태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중국농업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지역성, 이른바 지역적 차별성과 분화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중국 농업지대를 미국 농무부의 중국농업 통계처리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인구, 경지면적, 식량생산 등 대부분 주요 항목에서 華北평원을 포함하고 있는 북부지역이 전체의 1/4가량을 점하고 있다. 관개시설은 벼 재배지역인 동부와 중부지역이 70%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단위면적당 생산량⁶⁾도 이들 벼 재배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 동북부지역

중국의 동북부지역은 黑龍江省, 吉林省, 遼寧省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은 20세기 초 철도부설과 함께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된 지역이다. 개간지가 확장되면서 대규모 국영농장이 성립되었고 기계화 보급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2000년 말 현재 이들 세지역의 총인구는 1억 156만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지 않다. 연간 작물생육일수는 북쪽이 140일, 남쪽은 180일에 불과하여 대부분 지역에서 연간 1모작에 그치고 있다. 연간 강수량도 600mm 내외로 작물생산에 큰 제약조건이 되고 있지만 중서부지역은 하천과 계곡에 충적토가 쌓여서 비교적 비옥한 지역이 많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소맥, 옥수수, 대두 등이 널리 경작된다.

최근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우유소비량이 증가하면

6) 여기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한 토지에서 동일작물에 대한 절대적 비교라기 보다는 설사 각기 다른 작물이 파종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면적의 토지에서 생산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

서 黑龍江省을 중심으로 젓소사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松花江과 遼河江 유역의 평야지대에서는 수입수요의 증가에 따른 대두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국내수요의 충당을 위한 사탕무우의 재배도 활발하다. 또한 吉林省을 중심으로 耐冷性 고품질의 다수확 벼 재배에 성공하고 있는바, 대부분이 자포니카 계통의 벼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벼 재배에 위협적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2) 북부지역

북부지역은 山東省, 河北省, 河南省, 山西省, 北京市, 天津市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古來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지역이다. 2000년말 현재 인구는 약 2억 9천만명에 가깝고 전국 인구의 1/4가량에 해당된다.

북부지역은 山西省을 제외하면 전지역이 黃河의 중·하류지역에 위치해 있다. 山西省은 黃河의 상류에 위치한 황토고원지대로서 토질과 기후조건이 좋지 않아 조방농업이 성행한다. 이들 대부분 지역은 일조시간이 연간 약 2,500시간 내외로 작물생육에 충분한 편이나 강수량은 매우 부족하여 년중 600~800mm에 불과하다.

河北省과 河南省에서는 소맥과 면화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윤작형태로 기장, 수수 등 잡곡의 재배비율이 높다. 山東省은 四川省을 제외한 중국 최대의 농업생산지로서 땅콩의 주산지이며, 그외 옥수수, 대두, 미곡, 감자, 채소 등도 많이 재배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수익성이 높은 사과, 복숭아 등 과수재배 면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수리시설 확충, 염분토지의 개간, 최근의 화학비료 증투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향상되고 있고, 北京과 天津이라는

대도시를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수준도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3) 서부지역

서부지역은 陝西省, 甘肅省, 內蒙古自治, 寧夏自治區, 新疆自治區, 青海省 등 중국 서북의 변경을 따라 광범위하게 펼쳐진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몽고(몽고족), 영하(회족), 신강(위구르족) 등지는 소수민족 자치구로 지정되어 있고, 青海省과 甘肅省에도 소수민족 집단이 널리 퍼져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북부의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겨울이 길고 혹한이 심하다. 특히 농업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이 연평균 50~100mm정도에 불과한 지역이 많아서 농작물의 재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광대한 초원을 배경으로 양, 염소, 말 등의 유목형태의 축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은 낮다.

4) 동부지역

동부지역은 浙江省, 江蘇省, 安徽省 및 上海市의 4개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인구는 1억8천만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국인구의 15.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동으로는 태평양에 연해있고 양자강을 중심으로 남북의 평원과 양자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이 대표적인 농업생산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전국 최대의 도시 上海를 배경으로 주위의 각 성에

서는 가축, 가금, 야채, 과일, 공업원료용 농산물 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라 상업농으로의 진전이 가장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지역이다. 작물은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미곡이 보편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축산물 중에서 돼지사육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태호를 중심으로한 태호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은 벼와 돼지사육 이외 양잠이 크게 성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양잠은 최근 중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견직물류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크게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중부지역

중부지역은 湖北省, 湖南省, 江西省 등 세개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자강 중·상류 지역으로서 많은 지류가 형성되어 있고, 소구릉지가 많다. 이 지역은 산악과 분지 및 호수가 혼재해 있는 지역으로 토지의 비옥도와 강수량 등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이 지역은 미곡과 소맥의 윤작이 일반적인 영농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은 전국 최대의 미곡생산 지역으로 주로 인디카계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작물재배지수가 평균 225%정도로서 집약적 영농형태가 주류를 이루며, 단위면적당 식량작물의 수확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미곡재배 이외에 남부의 고지대에서는 고온다습한 기후를 이용하여 차의 재배가 성행하고 있다.

6) 남부지역

남부지역은 廣東省, 廣西自治區, 福建省 및 海南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海南省은 중국 유일의 섬으로서 省단위 행정구역을 형

성하고 있고, 그 외 세개의 성은 전체면적의 80%에 해당하는 지역이 험준한 산악과 고원지역이다.

이 지역은 고온다습한 아열대기후 지역으로서 수많은 작은 하천을 중심으로 농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충분한 농업용수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미곡재배에 적합하고 그 외 산악지역에서는 옥수수과 고구마가 보편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홍콩을 배후도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둥성의 일부 지역에서는 채소, 과수 등이 발달해 있다. 특히 파인애플, 사탕수수, 생고무, 코코아 등 환금작물이 유망하게 재배되고 있다.

7) 서남부지역

서남부지역은 인구와 농업생산에서 중국 최대의 省인 四川省을 비롯하여 관광으로 유명한 貴州省, 잎담배의 최대 생산지인 雲南省 및 티벳민족의 西藏自治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기후는 지역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할 정도로 다양하다. 四川省을 제외하면 수리가능지역의 협소로 1인당 곡물에 대한 식부면적은 전국 최저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략 양자강 상류의 내륙분지와 사천성의 사천분지를 중심으로 약 50만ha의 농경지에서 각종 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겨울에 소맥, 유지작물, 대맥 등이 주로 경작되고, 여름에는 미곡, 옥수수, 면화, 고구마 등이 주로 재배된다. ha당 미곡 생산량은 6,000kg으로 중국 동남부의 비옥한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다. 운남성과 사천성은 전국 최대의 돼지 생산지역이기도 하다.

2. 중국 농업구조 변화와 농정 전망

1) 중국의 농산물 수급 전망

중국인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농산물 수급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수요측면에서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고도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민소득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는 곡물중심의 소비패턴에서 육류, 채소, 과일 등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소득탄력적 농산물 소비로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다. '99년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소비량은 곡류 197.2kg, 채소 110.8kg, 육류 19kg, 식용류 6.7kg 등이다. 이는 과거와 비교하여 곡류와 채소류의 소비량은 감소추세이나 식용류, 육류, 가금육 등의 소비량은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도·농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곡류를 제외한 채소, 육류, 식용류 등에서 도시주민이 농촌주민에 비해 더 많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식품의 소비가 증가함을 설명해 주는 증거이며, 시장개방 확대조치로 외국의 선진 고품질 농산물이 수입될 경우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그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전체인구 중 아직도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빈곤 인구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농산물 수요는 국민소득 증가에 발맞추어 전반적으로 소득탄력적 농산물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빈곤층은 밀, 옥수수 등의 소득비탄력적 기초식량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중국의 도·농간 1인당 식품소비량 비교

(단위: kg/년)

구 분	국 류		채 소		식 용 유		육 류		가 금 류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1985	257.0	134.8	131.1	144.4	4.0	5.8	11.0	18.7	1.0	3.2
1990	262.0	130.7	134.0	138.7	5.2	6.4	11.3	21.7	1.3	3.4
1995	258.9	97.0	104.6	118.6	5.8	7.6	11.3	19.7	1.8	4.0
1999	247.5	84.9	108.9	114.9	6.2	7.8	13.9	20.0	2.5	4.9

자료 : 중국농업발전보고, 2000

공급측면에서 중국은 '90년 후반 연속된 풍년으로 현재는 농산물 공급이 과잉기조를 보이고 있다. 일부지만 남부의 조생벼는 품질이 떨어져 판매난이 발생하고 있고, 고품질 밀 생산 비중은 적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신선과일의 생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공·저장과일의 비중이 낮고, 저품질의 과일 비중이 아직도 여전히 높아 고품질의 과일시장은 이미 수입과일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 이처럼 농산물의 총체적 수급상황을 보면 수급균형을 유지하거나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저품질의 농산물 생산비중이 높아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산물 공급구조와 수요구조간에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결과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시장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생산은 증가되었지만, 소득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공식적인 약13억의 인구뿐만 아니라 통계에 기록되지 않는 다수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서부대개발과 같은 국토의 개발 등으로 경작면적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측면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역에 따라 매년 홍수, 가뭄, 한발 피해 등 자연으로부터 받는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

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비농업부문의 토지수요가 증가해 농지의 전용으로 경작면적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호당 경지면적이 0.4ha로 영세소농구조⁷⁾를 지니고 있으며, 농업용 수자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해 작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산림 보호와 초지 조성정책(退耕換林)⁸⁾의 적극적 시행으로 경작면적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2) 농산물 생산전망

중국은 WTO 가입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피해보다 이익이 많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불리한 요소가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다. 이를테면 WTO 규정의 제한으로 중국정부의 농업에 대한 거시적인 지원공간이 축소되어 농산물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을 상실하게 되며, 국내시장은 오직 관세에 의한 보호조치만 있게 된다. 게다가 현 상태의 중국은 아직 기존의 비관세 조치를 WTO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관세로 전환할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⁹⁾ 수입농산물은 국내 농산물 생산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 7) 참고로 1999년도 한·중·일 3개국의 농업지표를 살펴보면 호당경지면적은 각각 1.35ha, 0.4ha, 1.4ha이고 농촌인구의 비중은 각각 8.7%, 69.5%, 3.9%이며, 농업취업인구 비율은 각각 8.7%, 68.5%, 4.5%임. 그리고 농림수산업의 GDP 비중은 각각 6%, 31%, 2%로 나타남.
- 8) 이는 과거 중국이 무분별한 개간으로 인하여 산림이 황폐화되었는데, 이러한 황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은 최근 열등의 농경지나 부적절한 농경지를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9) 예컨대 중국의 농수산물 비관세조치로는 수입쿼타, 수입인허가, 통관, 수입농산물 국가독점 판매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중국은 현재 수입인허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고, 수입농산물의 검역과 통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수입농산물의 국가독점 판매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1) 식량작물

중국의 식량작물은 주로 도곡, 소맥, 옥수수, 수수, 기장, 조 등 곡류와 감자, 고구마, 서류, 대두, 녹두, 팥, 완두, 잠두 등 두류를 포함한다. 식량생산지역은 매우 광범위하면서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수도, 소맥, 옥수수의 비중이 85%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중국의 식량작물 주산지를 살펴보면 秦嶺-推河이남, 靑藏高原의 동부는 수도의 주산지로서 전국식량 과종면적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秦嶺-推河이북, 長城이남, 六盤山東部는 동소맥, 옥수수, 조, 수수, 대두, 서류의 주산지이다. 그리고 동북3성은 옥수수, 대두, 춘소맥, 수수, 기장, 감자 등의 주산지이며, 서북지역은 관개농업지대로 春麥, 조 등이 생산되고 있다. 식량작물 과종면적은 '98기준으로 전국농작물 총과종면적중 73%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그중 도곡은 27%, 소맥은 26%, 옥수수 22%, 두류 9%, 서류 9%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¹⁰⁾

중국의 식량작물중 주요한 작물은 쌀, 밀, 옥수수 등이다. 중국인들의 중요한 쌀소비 품종은 인디카 계통이며(약 78%) 자포니카 계통의 소비는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은 향후 한국과 일본의 쌀 시장이 개방되어 수출물량이 증가될 것을 겨냥하여 동북3성을 중심으로 조생종인 인디카 품종에서 고품질인 자포니카 쌀로 생산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남부지방의 저품질 인디카계통 쌀의 보호가격 구매제한을 발표하는 등, 쌀의 품질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고품질 쌀 재배면적의 증가가 예상된다.¹¹⁾ 그러나 밀과 옥수수는 국내가격의 하락추세

10) 오경태, “중국의 식량발전”, 『국제농업소식 63호』 농림부, 2000, p.122.

11) 조창완 외, “중국의 식량유통 체계 개혁에 관한 연구”, 『농업과학기술연구』 제34집, 전

로 농민의 생산의욕 저하와 수입증가가 예상되고¹²⁾, 이들 생산농민들이 고소득 경제작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타작물로의 작목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두와 대두박은 자급자족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국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던 작물이다. 최근 유지작물 중 대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두의 국내 수익률 저하로 생산농민들이 재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장래 수입 증가 품목으로 예상된다. 대두박의 경우도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고 국내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내 수요량의 33%가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두유 수입비중은 현재 국내 소비의 절반 이상을 점유해 이들 작물의 수입 비중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과일 및 채소류

중국 정부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수출시장을 겨냥해 과실류에 대한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곡물 수입이 확대되면 기존의 곡물 재배면적이 경제작물인 과실류 재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의 과일 생산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과실류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1999년 기준으로 사과(37.7%), 감귤류(15.8%), 배(13.3%), 바나나(6.5%), 포도(4.3%)의 순이며 채소류 식부면적과 생산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중국은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패턴의 다양화와 소득탄력적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들 과실류와 채소류의 식부

남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 1999, pp.117-118

12) 중국의 주요 곡물 수입국가는 미국으로 수입관세를 현재의 22%에서 2004년까지 17.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는 전 미국 곡물농가의 소득이 7.7%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일본농업신문 사설, 2000.7)

면적과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과, 감귤, 배, 포도 등의 과실류 및 마늘, 상추, 오이 등 채소류의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 비해 40%~80% 저렴한 수준이며, 이들 품목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생산기술과 우량 품종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다.¹³⁾

<표 6> 중국의 농작물 재배면적추이

(단위: 천ha, 천톤)

구분	1978		1989		1999	
	재배면적	비 중	재배면적	비 중	재배면적	비 중
식량작물	120,587	80.3	112,205	76.6	113,161	72.4
면 화	4,867	3.2	5,203	3.5	3,762	2.4
유지작물	6,223	4.1	10,504	7.2	13,906	8.9
채 소	3,331	2.2	6,290	4.3	13,347	8.5
과 수	1,657	1.1	5,372	3.7	8,667	5.5
기 타	13,438	9.0	6,980	4.8	3,566	2.3
합 계	150,103	100.0	146,554	100.0	156,373	100.0

자료: 중국통계출판사, 『중국통계년감』, 2000.

3) 중국의 농업정책 동향

중국정부는 2002년 1월 금년도 농촌정책의 기본 골격을 결정하는 “농촌공작회의”를 개최하여 WTO 가입이 중국 농업발전과 개혁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 회의는 장기적으로 보아, WTO 가입은 중국 농업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농촌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수출의 국제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비교우위 농산물의 수출을 확

13) 丹軍, “我國農產品市場的調整與對策”, 「農業問題研究」, 1998, p.10

대하는데 유리하며, 농업구조 조정으로 중국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자금, 기술, 관리 경험을 들여와 농업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유리할 것이고 농산물 시장 체계와 국가의 농업지지체계를 건립하는 것을 가속화시켜 농업과 농촌경제관리체계 및 무역체계를 개혁하고 개선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국제시장의 농산물생산비와 가격이 비교적 낮고, 중국 농업의 경영규모가 작기 때문에 토지밀집형의 전반적인 농산물생산은 비교적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우위를 구비하고 있는 노동밀집형 농산물의 시장개척능력 또한 약하다고 평가하여 세계무역가입은 중국 농업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¹⁴⁾

중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과잉기조¹⁵⁾를 보이고 있는 곡물류의 생산을 축소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원예작물, 축산물, 농산가공품 등의 생산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농업구조조정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WTO 가입과 곡물류의 시장접근물량 설정, 수출보조금 철폐에 따라 곡물류의 과잉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구조조정과 작목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우량품종의 도입, 육종 및 보급을 신속히 추진하여 고부가가치의 특산품을 개발하는 등 전면적으로 농산물 품질을 제고시킨다. 둘째,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분석하여 지역의 특화된 농산물 주산단지를 개발한다. 셋째,

14) 이수행, “중국 2002년 ‘농촌공작회의’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15) 중국은 계획경제하에서는 만성적인 농산물 부족국가였으나 개혁개방이후 일단의 농업개혁을 통해 현재는 일부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농산물 과잉기조를 보이고 있음. '95년부터 시작된 농산물의 연속적인 풍작으로 초과공급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농산물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농산물 품질이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원료용 품종을 개발하여 원료 생산의 전문화, 기지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가공업을 발전시킨다. 넷째, 향진기업과 소도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농촌노동력의 2·3차 산업에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농민의 취업과 소득증대 기회를 확대시킨다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구조조정 시책추진에 따라, 중국 농민들은 부가가치가 낮은 곡물 등의 생산은 줄이는 대신, 시장판매가 용이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생산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정부는 중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첫째, 각 지역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작물과 품질을 적극 개발하여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과 용도에 적합한 농작물을 생산하고, 둘째, 식량작물과 경제작물로 양분되어 있는 현행 농업구조에 목축업을 추가하여 3원 구조로 개편하는 등 구조조정에 노력하며, 셋째, 가공업을 발달시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업을 생산-가공-유통까지 일관화 한다. 넷째, 국내시장의 정보화와 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다섯째,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을 늘려가며, 여섯째, 향진기업과 농업생산을 연계시켜 산업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고, 일곱째, 식품검역을 강화하여 수출입식품의 안전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와 같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국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발전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농업을 국민경제 발전의 최우선 위치에 두도록 한 것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IV. 대중국 지역농산물 수출전략

1. 지역농산물 수출품목 및 수출대상지역 선정

중국은 광대한 국토면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세계 모든 품목의 농산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농산물 생산량 및 생산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농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의 농산물 품질은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산물중 중국 농산물시장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는 수출가능한 품목과 대상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 농산물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품목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들이 개발해야 한다. 그 기준은 첫째, 가격경쟁력이 없으면 품질경쟁력이라도 있어야 한다. 즉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이나 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맛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과 중국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은 다르다. 따라서 우리의 농산품을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에서는 생산되지 않거나 희소성을 가진 품목 내지는 차별화된 품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만이 생산하고 있거나 지역특산물인 경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략품목을 지역별로 선정하고 개발하는 전략이 요망된다.

먼저 중국 농산물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사과, 배 등 고급과실류와 절화 및 선인장 등 고급 화훼류,

인삼 및 인삼제품, 김치, 단무지, 삼계탕, 고추장, 된장 등 장류 및 가공식품,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등이다. 또한 향후 중국의 농업 원자재 수요증가의 추세에 따라 비료, 농약, 농기계 등 국산 농업 원자재 및 기계류의 수출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¹⁶⁾

이들 유망품목중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예상되는 서해안 지역 농산물은 지역의 특성과 특화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배, 절화 및 선인장 등 고급절화류, 인삼 및 인삼제품, 김치, 삼계탕 등 가공식품, 돼지고기, 닭고기 등 일부 농산물과 축산물로 판단된다.¹⁷⁾

한편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0년 ‘세계발전보고’에 따르면 1998년 지구촌 1인당 평균 GDP는 4,890달러이며, 1인당 GDP가 3,000달러에서 9,000달러 사이이면 중진국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소득 수준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소비가 일정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지역별 1인당 평균소득을 '99년 기준으로 省별로 살펴보면 1인당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해시로 30,805元이며, 다음으로 북경시 19,846元, 천진시 15,976元이었다. 이들 지역은 중국의 대표적인 직할시들로 인구 1천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상해시 3,850달러, 북경시 2,480달러, 천진시 1,997달러이다.¹⁸⁾ 또한 1만元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은 광

16) 조창완, “중국의 WTO 가입과 전남농업의 대응전략”, 2000, p.8

17)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향후 중국농산물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산물은 ①고구마, ②유기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 ③옥수수(특별품종), ④특색(특별품종) 대추, ⑤특색(특별품종) 과일과 채소, ⑥영지버섯 제품 임.(中經網, 2001.10.27)

18) 상해시 통계국이 발표한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년 상하이시의 GDP는 4,951억위안(약 79조2160억원)이며, 상하이 시민 1인당 GDP는 3만3700위안(약 539만원)으로 전년

동성¹⁹⁾, 요녕성, 강소성, 복건성, 절강성이고 산둥성이 8,673元 수준이다. 중국의 관영 신화사통신은 “선전과 상하이 등 연해도시들은 물론, 베이징시도 1인당 GDP가 3,000달러를 넘어서 중진국 수준에 진입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며 “2010년에는 중국 전체가 중진국 수준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소득구조면에서 지역간 소득구조가 불균등하며 내륙과 연안지역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어 있다. 즉 광둥성, 절강성, 강소성, 상해시 등 황해연안을 중심으로 중국의 최상위 소득층 인구의 약 5%(6천만명)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소비규모보다 훨씬 크다. 특히, 상해시, 절강성, 강소성, 광둥성, 산둥성 등은 서해안과 기후조건이 비슷하고 농작물 생산과 소비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해안 농산물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이 주 공략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 농산물이 한·중 양국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농산물 품질이 우수하다고는 하나 가격 수준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은 농산물 구매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다 2700위안 증가, 처음으로 4,500달러선을 초과한 것으로 예측함, 또한 북경시(北京)도 2001년 1인당 GDP가 3,000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보도함.(동아일보, 2002, 2, 10)

19)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는 2000년 1인당 GDP가 4,500달러를 넘었으며 2001년에는 5000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함.(동아일보, 2002. 2)

<표 7> 중국의 지역별 국내총생산액 비교(1999년 기준)

지 역	GDP(億元)	1인당GDP(元)
북 경	2174.46	19,846
천 진	1450.06	15,976
하북성	4569.19	6,932
산서성	1506.78	4,727
내몽고자치구	1268.20	5,350
요녕성	4171.69	10,086
길림성	1669.56	6,341
흑룡강성	2897.41	7,660
상해시	4034.96	30,805
강소성	7697.82	10,665
절강성	5634.89	12,037
안휘성	2908.59	4,707
복건성	3550.24	10,797
강서성	1962.98	4,661
산둥성	7662.10	8,673
하남성	4576.10	4,894
호북성	3857.99	6,514
호남성	3326.75	5,105
광둥성	8464.31	11,728
광서자치구	1953.27	6,128
중경시	1479.71	4,826
사천성	3711.61	4,452
귀주성	911.86	2,475
운남성	1855.74	4,452
서장자치구	105.61	4,262
섬서성	1487.61	4,101
감숙성	931.98	3,668
청해성	238.39	4,662
닝하성	241.49	4,473
신강자치구	1168.55	6,470

자료 : 중국통계년감, 2000

2. 중국 농산물 틈새시장 공략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사회계층을 10개 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²⁰⁾ 이들 10개 계층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계층은

1차산업 종사자로 44.0%이며 다음은 2, 3차산업 종사자로 각각 22.6%, 12.0%이었다. 이중 수입 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은 자영업자, 당·정부기관 고위직, 기업체 고위관리직, 사영기업주 등 4개 계층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8-9% 정도로 중국 전체인구가 13억명이란 가정할 때 약 1억명에서 1억1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표 8> 중국의 10대 사회계층 및 구성비

(단위: %)

구분	구성비	수입소비재 구매층 여부
당, 정부기관 고위직	2.1	0
기업체 고위 관리직	1.5	0
사영기업주	0.6	0
전문 기술직	5.1	x
당, 정부기관 일반직	4.8	x
자영업자	4.2	0
3차산업 근로자	12.0	x
2차산업 근로자	22.6	x
1차산업 종사자	44.0	x
실업자(무직, 학생제외)	3.1	x

자료 : 中國 新經濟報, 2002. 2. 11

이와 같이 수입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인 당·정부기관 고위직, 기업체 고위관리직, 사영기업주 등은 소득이 높을 뿐 아니라 대외접촉이 많고 외국상품에 대한 소비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이들은 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략하는 틈새시장²¹⁾ 공략 방법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우리 농산품을 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우리 농산품의 맛에 익숙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

20) 新經濟報, 2002. 2. 11,

21) 틈새시장(Niche Market)은 특정계층의 수요를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요계층이 한정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은 한국문화의 체험이라는 형식을 통해 우리 농산품을 소비토록 유도해야 한다. 이들이 한국 농산물을 소비하게 될 때 한국 농산품에 대한 소비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그것은 중국 소비자들이 다음과 같은 소비행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전시소비(Conspicuous Consumption)성향을 지닌다. 내구소비재의 경우 항상 친구, 이웃의 브랜드 내지 품질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것보다 낮거나 최소한 동질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외제품에 대한 강한 선호 및 선택구매 성향을 지닌다. 개혁 개방 전에 억압되었던 소비동기가 소득수준의 향상과 개방 확대에 따라 외제품을 강하게 선호하며 최근에는 외제품 이라도 품질, 브랜드, 성능, 디자인 등을 비교하여 구매하는 선택적인 구매성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셋째, 브랜드 중심의 구매성향을 지닌다. 소비자의 구매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 인지도이다. 농산물도 이러한 소비성향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넷째, 주위의 추천탐문후 소비성향을 지닌다. 중국인들은 대부분 친인척, 직장동료, 친구 등 주위 사람에게 구입하려고 하는 제품의 품질, 신뢰도, 기능 등을 탐문해 본 다음, 이들이 구매대상 상품을 적극 추천하는 경우 구매하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때문에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을 먼저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전략으로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우리 농산물 및 농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때 농산물을 단순히 식품으로만 판매치 말고, 한류- 한국문화-의 연장선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공식품 및 농산물을 한국의 선물로, 또는

기업의 홍보 판촉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직장 회식 및 손님 접대 시 한국 농산물을 소비토록 유도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 외에도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이용하여 수출 농산물에 한국 가수나 배우와 연관된 내용을 첨부토록 하고 중국 청소년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각인 시키도록 하며 장래 이들을 우리 농산물의 주요 소비계층으로 유도해야 한다.

3. 중국 농산물시장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우리 농산물을 수출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중국에 대한 시장 조사 없이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 방식이며, 장기적 투자와 시장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 농산물 시장은 지역적 광활함과 거대한 소득격차, 체제전환 과정 등에 기인하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일괄적인 중국의 농산물시장 특성을 언급하기가 어려우나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경제와 관료적 통제가 병존하는 혼합시장이다. 농산물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나 흉년과 기근이 발생할 경우 아직도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혼합시장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공급자시장'에서 '구매자시장'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성장시장이다. 개혁·개방이후 중국경제의 농산물 공급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농산물의 공급제약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대부분의 농산물간에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 셋째,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으로 농가의 시장판매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전환기 시장이다. 이는 각종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국가통제에서 자유화되면서 농산물도 시장조절 메카니즘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넷째, '92년 이후 외국의 다양한 고품질 농산물이 백화점에 진열되기 시작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상품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농산물 시장은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시장 특성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중국 농산물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효율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하는데 지역별 우선순위를 두고 1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국토를 분할하여 순차적인 지역개발정책을 채택한 것은 그만큼 중국대륙이 거대하며, 지역마다 나름대로 경제발전수준, 발전 잠재력, 지리적 위치 등 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차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데 기인한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거울삼아 지역농산물의 중국시장 진출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도 각성별, 도시별 특성을 파악하고, 시장특성, 소비행태, 소득수준, 유통구조를 먼저 파악한 후, 각 성이나 도시에 맞는 판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4. 고품질위주의 지역농산물 차별화 전략 수립

중국 농산물시장 진출 시 우리 농산물이 고품질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 소비자의 특성상

초기에 농산물 품질이 저급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중국 농산물 시장에서 외면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수입소비재를 선호하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들의 소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비행태도 고품질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로써 승부하지 않으면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현재 중국의 채소와 과일, 육류시장에서는 수량위주에서 품질위주로 소비행태가 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농산물 소비가 다원화하여 채소, 과일, 육류 등의 고품질 농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녹색식품(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²²⁾하고 있고, 자연화, 보건화, 무공해화 등의 방향으로 소비변화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²³⁾ 중국의 농업생산은 과거 집단농장 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한 결과 대부분의 농산물은 생산성 증대를 위해 금비와 농약을 과다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농산물의 안정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동북3성을 중심으로 녹색식품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녹색식품(친환경농산물)를 중심으로 고품질의 우리 농산물을 중국농산물 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품질 이외에 중국 농산물과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것은 중국인들이 대체로 합리적 소비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제품이 중국 제품과 어떠한 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녹차는 중국차와

22) 개혁개방 이후 중국인들의 건강식품 소비 성장속도는 15%-30%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해 왔으며, 2000년 1분기 중에는 중국 도농주민의 1인당 건강식품 소비가 전년 동기대비 33.3%나 증가하여 건강식품의 시장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농산물유통공사, 중국환경농산물 소비동향, 2001)

23) 中國 信息報, 2001. 9. 10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차 마시는 방법이 한·중 양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안내 설명서를 첨부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농산물을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상품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소비계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농산물은 표준화·등급화가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등급화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포장을 고급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브랜드화하여 중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품질 좋은 고급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지역농산물의 홍보강화

중국인들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는 TV나 라디오 방송, 슈퍼마켓을 통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문 및 잡지, 친척, 친구, 직장동료들의 소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²⁴⁾

물론 우리 농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중국 전역에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대단히 크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신문 및 잡지 등은 비용이 저렴하다. 특히 중국인들의 신문구독 성향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한 홍보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현재 중국에는 韓流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청소년층을 중심

24) 농수산물유통공사, “중국 도시민의 수입품식 구매행태조사”, 2000

으로 우리의 대중가수나 배우들을 모방하거나 배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韓流 열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현재는 중국 내에서 이들의 인기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중성이 높은 이들을 이용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중국은 현재 인터넷을 통한 수입식품의 정보취득 경로가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장래 인터넷 사용인구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한 중국어 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한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인터넷 사용 연령층이 청·유소년 층이나 이들이 멀지 않은 장래에 수입식품 고객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에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흔히 공산품에 대한 광고나 홍보에 대해서는 당연시하면서도 농산품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농산품에 대해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

<표 9>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

(단위: %)

NO.	정보경로	복수비율(N=121)
1	TV, 라디오방송	45.5
2	슈퍼마켓	43.0
3	신문, 잡지	35.5
4	친척, 친구, 직장동료들의 소개	34.7
5	상가	23.1
6	식품생산자들의 판촉전단	18.2
7	영업직원들의 소개	9.1
8	인터넷	5.0
9	기타	5.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북경농업무역관, 2000

6. 중국 및 중국 진출 유통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유통망 확보

중국은 관시(關係)가 매우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유통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은 특히 유통문제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가전 등 2차 산업 부문은 어느 정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개혁 개방의 역사가 길지 않은 까닭에 유통, 서비스 등의 3차 산업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한 수준에 있다. 그러나 현재는 기존의 보수적이고 지역 폐쇄적인 성향을 띤 유통체제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으며, 그 틈새로 대형할인점, 연쇄점 등의 신유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²⁵⁾ 이러한 중국 유통 시장의 변화와 신유통의 성장은 한국 농산물의 대 중국 전략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 중국 유통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제조업체-도매상-소매유통'의 체제가 조금씩 무너지면서 대형화, 전국화된 체인 형태의 신유통이 성장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연쇄점(連鎖店)'이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 체인점의 비약적 성장을 들 수 있다. 둘째, 유통업의 대외 개방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중국내 6개 대도시와 5개 경제특구 등 11개 지역에 대해 합자 형태의 소매 유통법인을 허용하고 있으며 할인점, 슈퍼마켓, 연

25)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상품의 유통 규모가 빠른 속도로 팽창해 왔으며, 유통량 또한 매년 평균 15.3%씩 증가하고 있음. 1999년 중국의 상품 유통 총액은 1979년 유통 총액의 17.3배인 3조위엔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양적 측면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질적 측면에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배영준, “중국 신유통업체의 성장에 주목하라”, LG 경제연구원, 주간경제 668호, 2002. 3)

쇄점 등의 신유통 업태에 대해서도 다국적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개방 추세는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로 가속화되고 있다. 셋째, 유통의 현대화 추세가 시작되고 있다. 관련 투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상품 거래 시장, 배송센터, 물류센터 등의 관련 인프라도 선진화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형 유통업체는 까르푸(家樂福), 월마트(沃爾瑪), 메트로(麥德龍) 등 선진 다국적 유통업체들이다. 이중 1995년에 가장 먼저 중국에 진출한 까르푸는 현재 전국 15개 도시에 2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보다 1년이 늦은 월마트는 15개 점포를 확보하고 있다.²⁶⁾

이와 같이 현재는 중국 농산물 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유통업체의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 농산물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의 현지 유통업체와 중국에 진출한 선진유통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농산물 유통망을 확보해야 한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리 농산물 코너 및 상설매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우리 농산물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들 업체들이 중국 전역에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우리 농산물을 중국 전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매장과 유통기법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인지도도 제고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 광주지역 유통업체인 빅마트가 지역유통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심양시에 진출해 있고, 장래 우수 유통업체들도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음.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중국농업은 생산면에서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지만 품질이나 규격, 저장관리 등 농산물을 고품질화하고 상품화하기까지 아직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품질경쟁, 유통관리 기술에 관한 한 우리와는 아직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아울러 중국 농업의 농산물 생산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소비자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데는 적합하지만, 까다롭고 다양하며 변덕스러운 소비자의 기호와 입맛을 충족 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소득수준의 제고로 고품질의 농산물 수요가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시장의 공략을 장기적 안목에서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유통시장이 개방된 결과 이미 중국 농산물 시장에서는 농산물 수출국을 중심으로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중국과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서해연안 지역들도 중국 농산물 시장 진출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차제에 서해안 시대의 개막을 계기로 대중국 교류의 활성화를 기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 특히, 농업발전의 기폭제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농산물의 생산구조 개편을 통해 생산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시장개방과 무역제한의 완화, 그리고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식생활 패턴이 유사한 거대한 식품시장의 출현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의 관세인하와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는 우리의 대중국 수출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중국의 경제 발전과 국민소득 증대로 인한

식품소비 패턴변화로 가공농산물의 수출증대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공세적 입장에서 향후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및 중국 소비자의 기호와 입맛에 맞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품목 발굴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 농산물 가격이 중국 농산물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에 고소득 계층을 겨냥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중국 소비자의 기호와 선호에 맞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을 목표로 농업생산을 특화하고 품목별 전문수출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농업생산은 자연적 영향으로 지역별, 계절적으로 제약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에 걸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역별 특화방향을 살펴보면 인천·경기권은 도시근교의 이점을 고려해 첨단시설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시설원예 농산물 단지로의 조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충남권은 배를 주력품목으로 한 과수전문특화단지와 인삼 및 인삼제품을 이용한 인삼관련 전문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라권은 배 및 김치 및 김치가공식품, 고추장, 된장 등의 가공식품생산단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과 농업 및 농업기계류 산업을 특화하여 육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출농업의 육성 및 수출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수출 마인드를 가진 농민과 수출 가능한 농산물이 있다 하더라도 물적기반시설이 부족하면 효율적인 농산물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출터미널 조성, 수출항의 상·하역시설 정비, 도로 정비 등 물적기반시설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별, 저장, 포장 등의 일관작업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중국과 정기 노선이 개설되

고 있거나 개설될 예정인 인천, 평택, 보령, 군산, 목포항을 대중국 농산물 수출전진기지로 개발해야 한다. 이들 지역이 취항하고 있는 중국 지역의 배후에 상해시, 천진시, 북경시, 대련시, 청도시, 광주시 등이 위치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 시 우리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산·학·연의 합리적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준조세성 공과금 및 각종 벌금 등 외국 기업의 수출을 저해하는 규제가 많다. 또한 투명하지 않은 정책이 빈번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의 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이 존재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대중국 농산물 수출 시 큰 낭패를 보게된다. 그러므로 산·학·연의 공조체제를 통해 향후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수많은 중국내 비관세장벽을 청취·발굴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출농가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알맞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국 농산물 시장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중국 농정의 기본 정책이 수출농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0·5계획기간(2001~2005) 농정의 슬로건을 “해외로!”로 설정하고, 경쟁력지수가 0.5이상인 제품(예 : 축산물, 채소, 곡물가루 등 가공품, 잠사 등)에 대해 수출을 늘리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 농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연구에 관련한 전문연구자, 전문연구기관, 자치단체, 그리고 관련업계가 상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건설적인 산·학·관·연의 협동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인구 13억을 가진 거대시장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수출국들이 일찍 진출하고 선진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여 중국 농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단기적인 수출전략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수출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농산물 수출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중국 농산물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지속적인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중국에서 해년마다 열리는 박람회에 지역농산물 수출업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권장해야한다. 또한 우리 농산물 소비가 가능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연합하여 우리 농산물 판촉전을 개최해야한다. 이러한 행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 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한 수출보험 수혜를 확대하고, 중국 수입상의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신용장개설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의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중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관광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식품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전략은 지피지기에서 세워져야 한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중국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수많은 장벽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농산물 시장 진출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철저히 준비하며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다.

참고문헌

- 김성훈, “WTO 뉴라운드 출범과 한국농업의 생존전략”, 『WTO 뉴라운드와 한국·전남농업에 관한 심포지엄』, 민족농업연구소, 2002
- 김영수, “대중국 수입농산물 경쟁력 제고 방안”, 『식품유통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식품유통학회, 1998
- 농림부, 『농림업주요 통계』, 각년도
- 농수산물 유통공사, “중국 도시민의 수입식품 구매형태조사”, 2000
- 동아일보, 동아일보 기사, 2002. 2, 10
- 박동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1995
- 배영준, “중국 신유통업체의 성장에 주목하라”,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668호, 2000
- 조창완, “중국의 WTO 가입과 전남농업의 대응전략”, 2000
- , “중국의 식량 유통체계 개혁에 관한 연구”, 「농업과학기술연구」 제34집, 전남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 1999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년감』, 중국통계출판사, 각년도
-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중국농업발전보고」, 2000
- 중국 신경제보, 新經濟報, 2002, 2, 11
- 중국 신식보, 信息報, 2001, 9, 10
- 오경태, “중국의 식량발전”, 『국제농업소식 63호』 농림부, 2000.5
- 이수행, “중국 2002년 ‘농촌공작회의’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 일본농업신문, 일본농업신문 사설, 2000. 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제2회 한·중 국제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 姜受堪, 崔延森, 「農產品流通論」, 中國商業出版社, 1992
- 丹軍, “我國農產品市場的調整與對策”, 『農業經濟問題』, 1993